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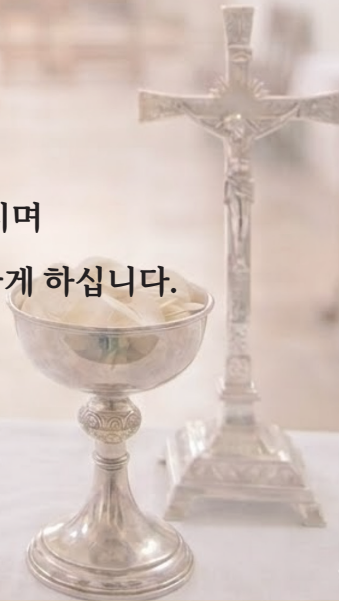
## 생명의 빵

하늘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니다.

한 조각 빵으로 낮아져 우리 손에 머무르셨으니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잔은 비워짐으로 충만해지는 신비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굶주린 영혼의 양식이 되고,  
당신의 피는 메마른 생명에 흐르는 강이 됩니다.

제대 위 작은 성체 안에  
십자가와 부활, 영원이 숨 쉬고,  
오늘도 당신은 우리 안에 머무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6/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8,645

현재 참가 인원 - 37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69    예물준비 성가: 221, 513    성체 성가: 163, 168    파견 성가: 164

삼위일체 대축일(5/3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6명	-	462명	-	-	518명



# 성 토마스 아퀴나스(1)

- 「스콜라 철학의 왕」
- 「천사적 박사」(Doctor angelicus)
- 「공동(共同)의 박사」(Doctor Communis)
- 중세 유럽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세」 하면 우리에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아마도 「암흑기」란 말일 것이다. 이런 오해는 중세시기의 모든 문화와 학문이 신 중심적, 교회 중심적이었던 것에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반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상이란 없다.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근대 서구적 사상도 200~300년에 걸친 총체적인 사회 변화였다. 이는 근대의 뿌리가 찬란한 중세 문명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이 개국 후 고려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새로운 지배 사상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왕조 찬탈을 위한 당연한 명분이지만 그렇다고 고려불상의 미려함과 청자의 우아함을 부인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중세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13세기는 서양다운 서양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미 근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 인물을 통해 중세를 관통하고 근대를 여는 사상을 볼 수 있으니 그가 바로 보편적이고 천사적인 교회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다.

## 생애

토마스는 1225년경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아퀴노 마을 인근의 로카 세카 성에서 태어났다.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던 토마스는 5살이 되었을 때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봉헌자로 보내졌다. 열 네 살이 되던 1239년 교황 영토와 황제영토의 경계선에 위치한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황제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자 집으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여기서 토마스는 자신의 전 생애를 결정할 운명적인 두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탁발 수도회를 만나게 된다. 나폴리는 시칠리아에 속하는 지역으로 동서방의 경계지역이자 전투지였다. 따라서 국경 지역의 특성상 그리스나 아랍 등의 외래문화가 상존해 있었다. 여기에 나폴리 대학은 프레드리히 2세에 의해 세워진 순수 국립대학으로 교황청의 영향력에서 어느정도 비껴나 있었으므로 교황청의 공식적인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을 글자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런 환경 아래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배우게 된다. 또 나폴리에는 1231년부터 도미니코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토마스는 19살이 되던 해 도미니코회에 입회했다. 토마스가 도미니코회를 선택한 것은 진리선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그는 신학 대전에서 “가르친다든가 설교하는 일은 관상이 차고 넘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단순한 관상보다 더 우월하다. … 따라서 갖가지 수도회 가운데 최고의 단계를 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다”(188문 6항)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귀족이었던 그의 가문은 토마스가 구걸승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토마스는 가족을 피해 파리로 가는 도중 형제들에게 납치돼 아버지의 성에 감금된다.

〈다음에 계속〉

# 공지 사항

## 1 미사 안내

6월 평일 미사 취소 안내  
북미, 캐나다 사제 연수로 인해 **6/9(화)부터 6/12(금)까지** 4일간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 2 시노드 5차 모임

- 일시 : 6/14(다음 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우리 자녀들과 본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5차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구역의 날

- 일시 : 6/14(다음 주일) 교중미사 후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4 여름 특강

- 주제 : 화해와 일치, 시노드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5(주일) 10시 미사 후 (1시간 30분)
- 강사 : 이제열 바실리오 신부님 (교황청립 성서연구원)  
**특강으로 이날 11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5 꽃동네 피정 프로그램

- 주제 : 관계의 치유, 감추어진 사랑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11(토) 1pm - 5pm(총 4시간)
- 강사 : 조인혁 타대오 신부님 (현 가나 꽃동네 분원장)
- 신청 : 피정 준비관계로 참가자는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해주시요



## 6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 입당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쁨진 참밀을 먹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신명 8,2-3.14L-16L  
<하느님께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주셨다.>

###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2독서** ..... 1 코린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부속가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 시민 되게 하여,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이지연 이근영 한천혜 신 정 안창근 신철순 박재룡 김경화 이운선 장명덕 천기전 박명완 광중세 최순기 이진만 이경원 이혜숙 이상철 김창문 공세진 장채수 유경종 차상철 장승연 김요셉

[교무금 Push Pay] 장명덕 조성욱 구미경 박주원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강봉조 이상철 황현선 윤성욱 장경화 정재열 윤법영 강철권 이종일 박소영 James Nguyen [감사헌금] 박정균 유주연 유경종 익명 [꽃 봉헌] 민들레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꽃 봉헌
\$5,817.00	\$4,310.00	\$7,123.20	\$645.00	\$100.00

##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티트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티트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6/25/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 2026년 환경의 날 담화

# 의로움이 깃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베도 3,13)

전쟁의 참화로 세계 곳곳이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하루빨리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더 많은 자원을 얻어 이익을 누리려는 시도는 평화를 깨트리고 인류의 공존을 위협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여기던 전쟁의 여파는 이제 우리 삶의 수많은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에너지와 자원 공급 문제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생활의 부산물인 비닐봉지 하나에서 최첨단 소재에 이르기까지 그 수급에 치명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일자리 위협은 약한 고리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80항).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불러온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과학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류의 근본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생태적 회개와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와 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되,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이들이 차별과 불평등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생명과 직접 연결된 윤리적 측면이 강하기에, 현세대와 대도시 중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미래 세대나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핵 발전은 낮은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적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우리는 생활 방식과 사회를 지탱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과감하게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발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부산 가덕도, 전북 새만금, 제주 서귀포 등에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 모두가 기후 위기의 실상을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 사회, 종교계가 한마음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 의존을 차차 줄여 가는 ‘탈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생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고 자

원이 순환되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과감하게 금지하는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어촌 지역 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일곱째,** 국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 다양한 교육 과정에 생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협력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기도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이로써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2026년 6월 5일 환경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헌동 아바스